



(주)대성자동포장기계

외길 16년 자동포장기 아성 구축

3면포장기 국제경쟁 나서

자동포장기 대명사

일반적으로 자동포장기 하면 떠오르는 업체 (주)대성자동포장기.

수많은 포장기계 종류 가운데 3면포장기를 고집하면서도 (주)대성자동포장기는 모든 자동포장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미지가 떠오른다.

지난 198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대성기계제작소를 시작으로 국내 3면포장기 제작을 시발했던 대성은 김기태 사장이 일본에서 포장기계 제작기술을 배워 창업하면서 씨를 뿌리게 됐다.

김 사장이 포장기계 불모지였던 우리 나라에 자동포장기를 도입하게 된 것은 소규모 산업기계는 대기업에서 참여할 수 없는 부문으로 중소기업에서 하다보니 기술이 낙후되고 발전이 정체돼 국내에도 가능성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몇몇 업체들이 포장기계 제작을 하고 있었으나 당시만해도 포장설비의 중요도가 인식되지 못했던 관계로 주문제작에 의한 수동식 기계를 만들어 내는 수준이었다.

김 사장은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접목시켜 반자동, 자동포장기계를 제작함으로써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자동포장기 제조메이커로 이미지를 다지게 됐다.

대성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아갈 즈음 89년 9



▲ 김기태 (주)대성자동포장기 사장

월 일본으로 자동포장기계를 수출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기술선진국인 일본에 우리 제품이 상륙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부품의 원만한 조달과 자사제품의 표준화를 위해 92년 자회사인 대성엔지니어링을 만들어 완벽한 보완체제를 갖추었고 이듬해 러시아, 영국, 미국, 중국 등 수출선도 늘려갔다.

포장기계를 열심히 만들고 발전시켜 후배들에게 물려줘 전문 업체로서의 명성을 지키겠다는 김 사장은 능력있는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결심이다.

“개인이나 기업이건 간에 서로간 이익이 돼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김 사장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면 발주가 이루어 지는 것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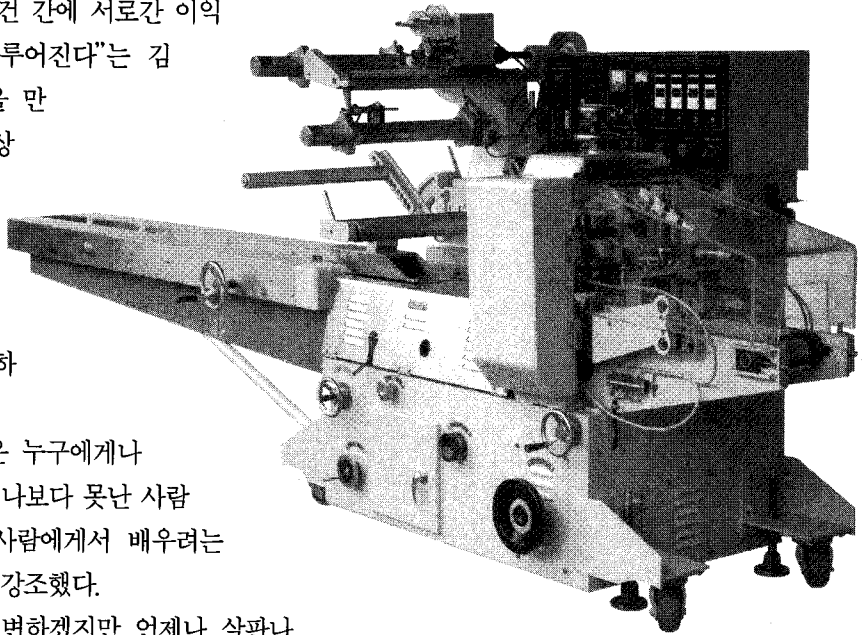
김 사장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며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대상황에 따라 변하겠지만 언제나 살판나는 회사를 꿈꾸는 대성은 이익이 나면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개인적인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써 직원들이 평생직장의 개념을 가져 이직율이 적다고 한다.

소사장제도 운영

대성은 소사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능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독립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간관계를 통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배려로 소사장 그룹과 대성의 역할 분담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아이디어 창출은 주로 국내외에서 열리는 관련 전시회에 파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김 사장의 경우 대형 마켓 식품부에 들러 포장방법과 제품 특성을 연구해 적용시킬 정도로 주변의 세심한 관찰로부터 정보를 얻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PILLOW TYPE AUTOMATIC PACKAGING MACHINE DS-281ALS

수집된 정보는 회의를 거쳐 개발에 착수하는데 수차례의 보완, 점검이 따르지만 실패의 경우도 높다. 실패시에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성은 지속적으로 매출의 일부를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된 제품들이 성능은 무시된 채 국산이라는 이유로 홀대를 받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대성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곧바로 생산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그런만큼 대성에서도 완벽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짜여진 공정을 지켜 출고된 제품은 하자발생이 거의 없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렇듯이 대성 역시 개발의 한계는 있다. 자금문제, 국산기계 신용도 등 대기업들과 연계된 개발시스템이 마련되지를 바라고 있다. 사용자들이 주로 대기업이기 때문

에 기술수준을 한차원 높이는데는 대기업과의 공조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주활동이 어렵고 개
발이 늦어질 때는 포기
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다”는 김 사장은 “이
제 자부심을 느낄 만큼 성장하
고 있지만 이제부터 풀어나갈 것이
많다”며 앞으로의 의지를 강하게 암시했다.

대성이 성장하는 요인은 중소기업에 맞는 전
문화, 세분화된 제품만을 고집하고 다른 회사
제품의 복제판매나 부당경쟁, 인력스카웃을 하
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오로지 3면포장기만을
고집하고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굳혀왔
기 때문이다.

“뿌리가 튼튼한 만큼 기대 성장도 크다”는 김
사장은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고성능 기계
를 올해안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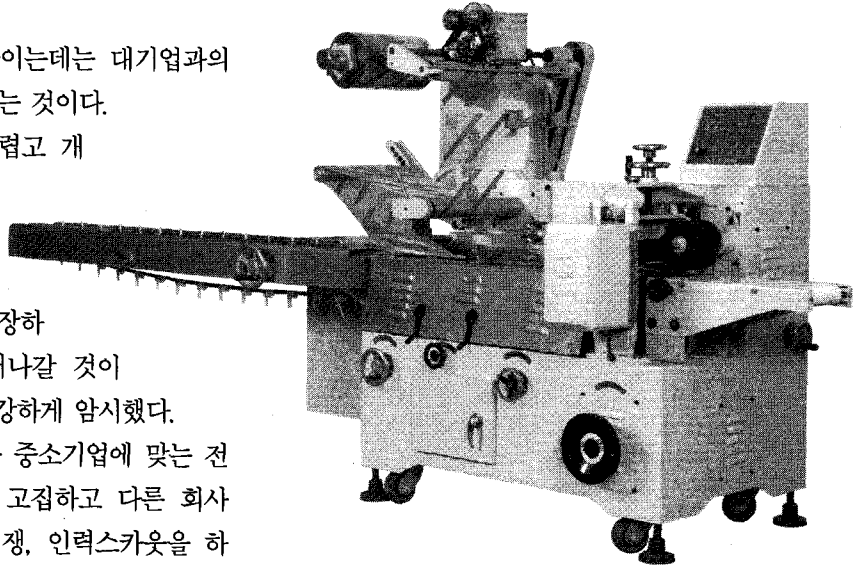
김 사장은 “자동포장기 하면 대성이라는 공
식이 성립되는 것은 기술력을 갖추고 이미지 제
고에 나선 37명의 전직원이 합심하여 일구어낸
결과로 앞으로 이에 걸맞는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중 슈퍼마켓이나 대형유통점 매장에
서 유통되는 3면포장제품의 70~80%가 대성자
동포장기에 의해 포장되고 있는 만큼 시장 점유
율도 대단하다.

일례로 어느 한지점에서 반경 1Km 이내에는
대성에서 납품한 포장기계가 10대 이상 있다고
한다.

할부금융제도

“생산제품의 최종 마감을 담당하는 포장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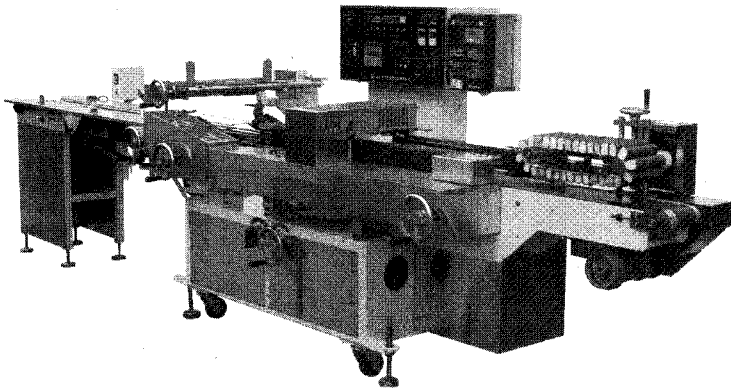
▲ PILLOW TYPE AUTOMATIC PACKAGING MACHINE DS-281

를 제작하여 성능을 인정받고 자사 기계로 포장
된 제품을 볼 때 뿌듯함이 느낀다”는 조병철 차
장은 “영업을 하다보니 자사제품에 의구심을 갖
는 사람들에게는 회사로 초청하여 모든 것을 보
여주고 누구에게나 개방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달 창립 16주년 행사를 가진 대성은 기
획조정실을 발족하는 등 조직의 재구성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발족하는 등 조직의 재구성과 함
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말은 영역에서 완벽
하게 검수 인계함으로써 완벽을 기하는 품질관
리에 나서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아니지만 조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홍보보다 구전이나 주변에서 소
개받아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으
려는 의지이기도 하다.

안정성과 고급화를 추구하다보니 불황을 겪
지 않는 대성은 원가절감, 인건비 절약 등 생산



▲ STRETCH TYPE AUTOMATIC PACKAGING MACHINE DS-1000

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기계 개발에 나서는 한편 고객의 만족에도 소홀함이 없다.

대성은 대한보증보험, 장기신용은행과 협약을 맺어 할부금융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면포장기가 꼭 필요하나 자금이 부족한 업체에게 기계값을 할부로 갚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이를 이용하는 업체가 늘고 있으며, 최신 기종의 경우는 6~7명의 인원절감 효과가 있어 6개월이면 설비비를 만회할 수 있다고 한다.

내적으로는 '신바람 운동'을 전개해 사원 복지후생에 철저를 기해 내가족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안정된 직장, 평생직장 개념으로 이직율이 적어지고 여기에 성실한 근무가 더해져 품질은 자연히 고급화되고 있는 장점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면서 유저와 도움을 주고 받는 연계체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A/S담당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 유저들의 불편을 덜고 있다.

신속한 A/S를 위해 부산, 대구, 경남·북 지

역을 담당하는 대구사무소 (053-616-7671)를 운영하여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물론 대성포장기의 명성은 해외에서도 알려져 농산물 소형포장기(대성엔지니어링 개발)는 수출량이 늘고 있으며 신모델 개발로 적극적인 수출전략도 세울 방침이다.


또한 회사의 개방과 함께 자사 제품의 소개를 비디오로 제작하여 배포, 비디오만 있으면 응급조치, 구동요령등을 쉽게 터득하도록해 간접적인 기술지도 역할은 물론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만 돌아가는 편의가 아니라 대성에게도 A/S신청, 문의 등 회수가 적어져 많은 시간을 재생산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다각적인 노력으로 현재의 대성이 가능했다.

대성은 자동포장기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앞으로도 불리워질 수 있는 기반이 남다르게 다져 있다.

잘 알려진 만큼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 이를 풀어 가는 것도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현재의 대성은 충분한 여력이 있다. 

오선진 기자